

기관 돋보기 | 충주시노인복지관

어르신과 함께하는 건강한 세상

어르신과 함께하는 건강한 세상, 꺾이지 않는 어르신의 삶을 응원하는 노인복지관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설평가에서 5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특히 2022년도 평가에서는 노인복지관 중 상위 5%에 이름을 올린 충주시노인복지관장 김웅.

어르신에게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김웅 관장을 만났다.

(권정주)

충주시노인복지관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복지관 본관은 개관한 지 20년, 남부본관은 10년이 되어 가며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본관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경로식당 등에 400여 명이, 본관에서는 300여 명의 어르신이 하루에 이용하고 있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속담처럼 노인복지관이 어르신에게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게 예의와 친절함을 갖추고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복지관의 개보수와 편의시설 구축 등 시설 정비를 진행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노인복지관이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인정받고 어르신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 충주시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변화에 예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시기에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들 수 있고, 노인복지관의 성과로 소개하고 싶다.

응급호출 등의 기능이 있는 AI 돌봄로봇 보급, 우울 스크리닝 조사를 통해 대상자 발굴·서비스 연계, 코로나19 예방·극복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충주시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제18회 충청북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참여 후 단체사진.

지역사회 변화에 예민하게 대응위한 노력
 나이대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어르신들에게 사회적·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인복지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을 고민하여 다양한 활동을 구상해 지역사회에서 실천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욕구·문제, 특정 시기의 이슈 등을 반영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새활용(업사이클) 사업, 노년기 부부 관계 개선 사업, 남성 독거어르신 일생생활 자립 사업 등을 소개할 수 있다.

추가로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법인과 함께 세대가 공감하는 문화공연과 체험부스, 노인인식개선 전시회 등의 내용으로 2017년부터 ‘세대공감문화대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이 축제는 충주에서 대표하는 세대 통합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거어르신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후원행사를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는 코

로나19 상황에서도 올해 16회를 맞이했다. 작년에도 행사를 통한 후원금으로 연탄·기름 및 난방용품을 전달하고 집수리를 진행했다.

충주시노인복지관은 지난 20년을 발판으로 앞으로의 20년을 내다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먼저 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은 노인복지관이라는 공간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관을 찾아오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다소 소극적 서비스보다 지역사회와 접촉면을 넓혀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기본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세대가 활용하고, 어르신들의 주체성과 주도성을 끌어내는 자조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막

퇴직한 60대부터 연세가 지긋한 90대까지 다양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 세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고 은퇴 전후의 삶은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내년에 개관하는 동부본관에 시도할 계획에 있다.

한편 100세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하고 베이비 붐 세대가 노인복지 영역에 들어오고 있는 지금, 연령대별 복지서비스 욕구와 문제가 다르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2023년 5월 충주시의 65세 이상 고령화비율은 22.5%(207,974명)이고,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동 지역은 19.5%, 읍·면 지역은 32.4%로 나타나 읍·면 지역의 65세 인구에 대한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복지관이 동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 먼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에 충주시의 어르신 누구나 노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노인복지 관련 인프라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충주시노인복지관은 시설평가에서 2009년부터 5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복지관 운영의 기본과 내실을 다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충주시노인복지관만의 사업들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복지관 운영에 있어 서비스 실적보다 어르신들의 욕구와 지역의 문제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내용과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서비스 질의 내실화를 위해 진지하게 점검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2024년에 동부본관 개관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는 3개의 기관이 충주시에 운영될 예정이어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수년의 경험으로 확인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와 이미 검증된 노인복지 프로그램 등을 3개 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공동으로 수행하고, 또한 3개의 기관의 특성을 살려 특화사업을 구상해 노인복지서비스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일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개원식 갖고 공식 출범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공식 출범

‘도민을 섬기는 든든한 복지 제공’ 목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연명모)이 지난 1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출연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직원 채용, 내부규정 제정 등 기본적인 행정체계를 갖추고, 새롭게 합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을 섬기는 든든한 복지, 소통과 신뢰로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시군과 함께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체들이 상생·협력하고, 지역에서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복지포럼, 토론회, 정책연구 등을 통해 공급주체의 성장을 지원한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도민 욕구에 따

라 새롭게 진입하는 공급주체들과 영세하게 운영 중인 시설·기관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재무·회계, 인사·노무 등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인큐베이팅을 실시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로 수요가 높아지는 돌봄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종사자에 대한 소진 예방을 위한 건강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지역 복지현장의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도민과 보다 활발한 소통을 하기 위해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누리집을 개설·운영한다.

누리집에는 사회서비스원의 기관·사업 소개와 향후 추진될 교육 및 각종 상담 신청, 연구활동 결과 등을 담아 제공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주요 SNS 채널 개설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는 물론 도민들과도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충북도, 노인학대예방의 날 맞아 캠페인 진행

노인학대 예방 신고의식 고취, 올바른 정보 제공 기대

충북도는 제7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홍보행사의 일환으로 학대에 방경찰관(APO)들과 함께 시·군별 장날 전통시장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학대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날 현장 상황에 맞추어 노인학대 예방 슬로건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기, 날 말씨를 맞추기, OX퀴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홍보물품을 제공하고 노인학대예방 및 도민들의 인권증진 의식을 고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는 노인학대 상담 전화(☎ 1577-1389)를 24시간 운영해 노인학대 신고와 상담 상시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노인과 가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피해노인 전용 상담터를 설치하여 학대피해노인의 안전한 신변보호와 심리적 안정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등 학대피해 노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5일 진행된 장날을 맞아 캠페인 참여를 위해 생겨진 전통시장 찾은 이장연 노인장애투인교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식을 고취하고 어르신들에게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면서 “많은 도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시노인복지관 본관 전경.



충주시노인복지관 남부본관 전경.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255-0504, 253-0504 FAX:(043)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daum.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출력·도면복사

무인 프린트샵 프린트카페

청주대정문점

가입문의 1522-5044

24시
 무인복사기

복사
 출력
 스캔
 팩스

제천시, '하루 한끼' 경로당 복지공약 '호응'

어르신 결식 예방·돌봄 강화, 시범운영 성공 기대

제천시가 시범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점심제공사업'이 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사방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에 점심을 제공해 노인 결식을 예방하고 돌봄 역할을 강화하고자,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복지공약이다.

식수인원에 따라 부식비 월 14만원에서 18만원과 정부양곡 연 5포에서 15포 등을 지원하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4만9039명(일평균 571명)에게 식사를 제공해왔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천형노인일자리 '경로당 복지도우미'도 운영하며, 점심 제공에 필요한 노동력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며 자체 공급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던 편이다.

특히 이 사업은 충북도 최초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선도 모델로 선정되며 국비 연 2억여 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통해 어르신들이 사업을 매우 반기고 있다는 판단이 섰고, 다만 식사의 질을 더 끌어올려 만족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며 "이를 위해 추후 '우리 경로당 레시피 뽑내기' 등 자구책을 추진해 식사의 질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추후 내년 사업 전면 시행에 앞서 정부양곡 지원규모를 기준으로 최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천시가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시 지원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경로당 이용자들의 압도적인 찬성표가 있던 만큼 사업에 내실을 기해 점진적으로 상향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에 후원 요청에 나섰

다. 그 결과 지난 9일(주비즈인사이드(대표 김상수)에서 양곡 115포를 후원받아 시범운영지에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천군은 진천군노인복지관 주최로 지난 4월 공주한옥마을에서 수행기관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야외 연수를 진행했다.

진천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활성화 '박차'

충북 도내 최고 수준의 자격수당·활동비 지원

진천군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 활성화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지난 8일 군에 따르면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수행기관인 진천군노인복지관(관장 이종욱)과 생겨진천노인복지센터(센터장 이인성)에서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123명을 채용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재가 어

르신 1,832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서비스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충북 도내 최고 수준의 자격수당과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행기관 2곳에 전담 차량 구입비와 종사자들의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교육비를 지원해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통해 노인복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서비스의 체계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음성군, 취약계층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학생들 간 교육 격차 해소 등 다각적 지원에 최선

음성교육지원청은 7월부터 8월까지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사업 '도전! 미션콜파서블'을 실시한다.

고등학생 여름방학은 단순히 쉬를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워 실천해 가는 자기주도적 학습 실천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

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회복, 학습동기 유발 등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제공한 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5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 취약계층(저소득층·복지사각지대) 학생 25명을 추천·선정해 자신이 선택한 도서1권 정복하기, 지역 영화관에서 최신영화 관람하기, 스타디카페(독서실)에서 열광 모드 돌입하기, 3가지 미션을 완수하는 테마로 진행된

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여름방학 중 학습지원으로 실질적인 자기주도적 교육 환경 제공과 학습 결손예방, 학습 능력 증진으로 자신감 향상에 도움,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해 학부

모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철 음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센터장은 "최근 기초학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때에 학습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자기주도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부르면 간다' 청주콜버스 현도면 시범운영 개시

청주시 읍·면 중 2번째, 대중교통 이용 패러다임 변화 기대

청주시가 지난 12일부터 서원구 현도면에서 '수요응답형(DRT) 청주콜버스' 4대를 시범 운영했다. 지난해 10월 운영을 시작한 오송읍에 이어 두 번째다.

DRT 청주콜버스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 없이 이용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서비스다. 이용자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전화로 호출하면 찾아가 하차 지점까지 운행한다.

이용자는 '바로DRT'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청주콜버스를 호

출하면 공영버스 승강장과 경로당, 마을회관 156곳에서 승·하차할 수 있다. 요금은 성인 500원, 청소년 400원, 어린이 200원이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호출은 오후 9시30분까지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오송읍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면서 "오는 8월 말까지 12개 읍면 지역에서 운영을 확대하고, 10월에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도 연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요응답형(DRT) 청주 콜버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흥덕구 오송읍에 DRT 청주콜버스 4대를 도입, 시범 운행중이다. 청주콜버스 선호도와 기존 노선 대비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각 84.9%, 64.8%로 나왔다.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나서

장려수당 지급에 대한 조례 개정... 262명 추가 혜택

청주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시는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법석 시장의 공약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장려수당

지급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지급 대상은 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에서 비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기관·단체 소속 사회복지사, 조리원, 생활지도원 등으로 확대한다.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62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금액은 월 7만원이다.

시는 20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와 국제로타리클럽3740지구 회원, 충주성모인과 관계자들이 백내장 수술과 황반변성 치료지원 사업 결과보고회를 진행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주시, 백내장 수술·황반변성 치료지원 성료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7지역·충주성모인과

충주시는 지난 12일 백내장 수술과 황반변성 치료지원 사업 결과보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7지역(예성,국원,충주중앙,충주남산) 로타리클럽 주요 인사와 충주성모인과 이사회원장 등이 참석했다.

해당 치료지원 사업은 시력 감소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충주 중

앙로타리클럽을 주축으로 4개 클럽이 합심해 지난해 7월부터 백내장 수술, 황반변성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년여 간 충주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성모안과의 치료지원, 총 1,590만원의 로타리 클럽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80여 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홍영진 충주중앙로타리클럽 회장은 "1년여 간 백내장, 황반변성 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해진 분들을 보니 감동"이라며 "앞으로도 로타리클럽이 사회환원을 통해 밝은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사업을 진행해 주신 로타리클럽, 성모안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며 "함께 발전하며 행복한 충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음은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수건류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정류 및 식용유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기저귀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음료류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제빙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병류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은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 개최



괴산군은 지난 17일 괴산군청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부모·아동관계자 등 10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동의 권리·복지 보장, 아동의 목소리 반영

괴산군이 지난 17일 괴산군청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부모·아동관계자 등 10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괴산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토론 진행자와 함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

호, 보건과 사회 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6개의 영역에 대해 10개 조로 나누어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실행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투표 결과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확대, 아동의 사회참여 시스템 강화 등이 가장 큰 호응

을 얻었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는 아동청소년 예술기획단 구성, 아동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한 어플개발, 정기적인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또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슬로건으로는 '아이들이 꿈꾸는 행복, 함께 만드는 미래 괴산'이 선정됐다. 괴산군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8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인현 괴산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에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뜻깊은 행사"라고 말했다.

보은군, 고령자복지주택 돌봄시스템 구축 '탄력'

충북도 공모 선정, 스마트 돌봄시스템 구축에 사용

보은군은 충북도의 '2023 고령자복지주택 스마트 돌봄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에 뽑혀 4억원의 사

업을 확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산·고령화문

제 해결을 위한 충북도형 주거복지 모델 시범사업의 하나다. AI 정보통신 기술과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노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고 발생 때 빠른 대처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번엔 확보한 사업비를 공공실버주택의 AI 스피커, 움직임 센서, 출입문 센서, 화재 센서, 응급호출기 등 스마트 돌봄시스템 구축에 사용할 방침이다.

보은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 '출범'

중장기 대응 정책 마련·지역소멸 체계적 대응

보은군의 인구 감소 문제 전반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할 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가 지난 15일 출범했다. 군은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한 뒤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은 인구정책, 교육, 여성·보육, 귀농·귀촌, 주거 분야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맞춤형 종합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인구증가 정책 추진,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 등 군 인구정책 전반을 자문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심의 등의 역할도 맡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5개년(2022~2026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2023년)을 수립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선 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군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1

월부터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행정, 전문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발굴에 나섰다. 안진수 군 기획감사실장은 "군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대응 정책을 마련,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을 만들기 위해 힘 쓰겠다"고 밝혔다.

증평군, 도내 전년 대비 인구와 출생 증가율 최고

3만7342명으로 전년보다 339명 늘어

증평군의 인구와 출생이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증평군의 인구는 2023년 5월 기준으로 3만7342명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339명(증가율 0.92%) 증가한 숫자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평군은 2022년 12월 한 달만은 제외하고,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증평군의 출생도 2023년 1월에서 5월까지 94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23명이 증가(증가율 32.39%)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도내에서 증평군 이외에 청주시(2.89%), 충주시(11.32%), 제천시(3.86%)만 출생인구가 증가했다. 증평군은 송산리 택지지구 개발 이후 공동주택의 건립과 정주

여건 개선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해 증가하고 있으며, 혼인건수 증가 등에 따라 출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민선 6기 1호 공약인 '함께하는 행복돌봄사업'과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증평군의 인구 증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옥천군, 통학 지원 '행복 교육 택시' 인기

월 15만원까지 통학 택시 비용 지원, 제도 지속 운영



황규철(가운데) 옥천군수가 지난 19일 옥천읍에서 청산면으로 통학하는 청산고 학생들과 직접 '행복 교육 택시'를 이용해 학교에 도착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옥천군은 기존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의 통학교통비를 지원했지만, 추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에 귀가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행복 교육 택시'를 도입했다. 첫 번째로 시행한 교육 시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군내 고등학생들의 통학 수단을 지원함으로써 밤늦게까지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하는 도시를 조성하겠다

는 취지를 담았다. 이 지역 학생들 가운데 수십 명이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활동을 마친 뒤 대중교통 운행 종료로 귀가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등교를 위해서도 새벽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라 큰 불편을 겪었다. '행복 교육 택시'를 운행하면서 이들의 불편이 해결됐다. 혜택을 받는 학생은 38명이다. 군은 이들에게 월 15만원까지 통학

택시 비용을 지원, 경제적으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했다.

황규철 군수는 지난 19일 '행복 교육 택시'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애로사항은 무엇 인지를 점검하기 위해 직접 이 택시에 탑승했다.

그는 이날 옥천에 거주하는 청산고 학생 3명과 등굣길을 함께하면서 '행복 교육 택시' 이용에 관한 개선사항과 학업에 필요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런 교육 의지에 따라 군은 2학기에 이 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할 방침이며, 오는 8월 회담자를 접수한다.

황 군수와 등굣길을 함께 한 학생은 "버스를 타고 다닐 때는 새벽에 일어나야 해서 매우 피곤했는데, 택시를 이용하니 아침에 여유가 생겨서 피곤함도 덜 하고 수업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택시 기사들도 친절해 등굣길이 즐겁고, 옥천에 살면서 공부하는 게 행복하다"고 했다.

영동군, 치매환자 실종 예방 '치매안심등불' 지정

지역 내 상점·약국·은행 등 6곳... 안전망 구축

영동군은 배회 및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안전망 구축과 실종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내 6개소의 '치매안심등불' 기관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등불'로 지정했다. 이곳은 배회하는 치매환자 발견 시 임시보호 후 경찰에 신고해 치매환자를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치매안심등불'은 실종 치매환자 감소 및 치매환자와 함께 살아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상점이나 약국, 은행,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최근 영동군치매안심센터(센터장 황희성)에서는 금사랑(35호), 매천리 CU(36호), 샘광고회사(37호), 황실자수(38호), 가마실주공마트(39호), 나들가게(40호) 등 지역업체 6개소를

또한, 치매안심등불 지정기관에서는 현판 부착과 치매 관련 리플렛 배부를 통해 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종 치매환자 발생 시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치매환자 등 인지저하자의 실종 사례 증가는 범죄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실종 방지 및 실종 시



'치매안심등불' 기관에 설치된 안내판.

조기발견, 대응체계 마련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기에 군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관심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치매안심센터(☎043-740-5947)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군, AI·IoT 노인 건강관리사업 '호응'

65세 이상 150명, 스마트 기기 활용 혈압·혈당 측정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비대면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측정과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노인들의 건강행태 개선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은 2021년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뉴딜 시범사업 공모에 뽑힌 뒤 매년 기능을 보강해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 건강 앱(APP)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혈압·혈당 등을 측정하고,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서비스다. 이 사업은 매년 사업대상자들의 건

군은 건강행태를 개선해야 할 65세 이상 노인 150명에게 사업 참여 기간 손목시계형 활동량·혈압·혈당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대여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군 보건소 전문인력은 건강 앱을 활용해 측정된 노인들의 건강 데이터를

상시 기록해 관리한다. 이 데이터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유선 확인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군은 최신기술을 접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활용해 돌봄 공백 최소화·군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에 주력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인 홀몸노인과 방문 건강관리 사업 대상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노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다른 건강 사업과 연계해 더 꼼꼼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 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정책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출시

5년간 최대 5000만원... 7월부터 매월 2주간 신청 기간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지난 15일 출시했다.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시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4,000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되며,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의 경우 상한선이 7,500만원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만기까지 계좌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 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며,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10만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가확대

화재 등 응급상황·활동 미감지 시 119 자동신고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기.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추가 10만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

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3268건이었다.

세부적으로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가 13만9053건이었다.

주요 사례로 올산의 70대 어르신인 경우 심근경색 시술 후 맥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아 치료가 가능했다.

전북 완주군의 80대 어르신은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전북 정읍시에서는 80대 어르신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응급관리요원이 보호자 확인 후 현관문을 개방해 응급실로 이송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한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대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해 신속한 구급 및 구조를 지원한다.

응급상황 시에는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할 수 있고,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를 확인한다.

특히 올해 본격 시행되는 3차 사업은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은 물론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을 추가도 도입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계시는 노인·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빈틈없는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분석을 통해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앞으로 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냉방기기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부담 해소... 에너지캐시백 홍보 당부

올해 유례없는 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에너지효율 1.51만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고효율 냉방기기를 설치해 줄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5~6월 지원 대상자 확정을 거쳐 설치 진행 중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 냉방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덜기 위하여 취약계층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 전기요금인상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대상도 확대한 바 있다.

강경성 2차관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측에 본격적인 더위가 도래하기 전 에어컨 설치를 적기에 완료하고, 설치 후 사후관리 등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방법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점검에 함께 참여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에 7월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하반기 에너지캐시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 45종 → 50종으로 확대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신청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사업이 지난 14일부터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 5종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이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에서 긴급활동이 추가되는 등 기존서비스도 늘어났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당 50~100분 월 3~4회 규모로 12개월 동안 제공된다.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상으로 가진 경우도 포함해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1인당 바우처 정부지원금 16만원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기반 그룹활동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유구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로, 월 17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월 6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최대 월 25만원을 지원한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중증 질환자 등과 같이 장애 및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직접 방문해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 지원사업은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호자 부재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절차 진행 중에 최대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60일 동안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7~8월 냉방비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여름 예상되는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 아동, 쪽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여름 예상되는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 아동, 쪽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6,942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시설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50만원의 냉방비 총 1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가정 밖 청소년 위한 '행복도시락' 배송 시작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행



행복도시락 예시.

여성가족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추진 중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여성가족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지난 4월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프로젝트 참여 기업

(에스케이(SK), 신한은행, 이디야커피)들은 총 23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에스케이(SK)는 지난 9월 청소년자립 지원관을 이용하면서 자립 준비 중인 250

명의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행복도시락' 배송(주3식 제공)을 시작했다.

주로 간편식으로 식사를 챙겨왔던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다 든든하고,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가정 밖 청소년이 3년 만기 최대 1,162만원

(세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설해 총 41명(6월 9일 기준)이 1회차 납입을 마쳤다.

청소년들의 방학이 시작되는 7월부터는 사회초년생 급여운용 방법, 재테크 방법 및 경제개념 확립 등의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 전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디야커피는 카페 근무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커피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국제커피스쿨, GCS)을 시작했으며, 교육을 수료한 청소년은 이디야커피 직영 매장에서 일 경험(인턴십) 기회를 갖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여성가족부장관 약속 1호-청소년의 마음건강을 돌보겠습니다!'와 연계한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지원이 버스' 운행(전남, 충북, 경남, 세종, 대전)도 시작할 계획이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힘쓴다



청주시는 지난 19일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청주복지재단,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매니저 발대식을 진행했다.

청주시, 청주복지재단·충청에너지서비스 협약 도시가스 안전매니저 130여명 참석, 발대식 진행

청주시는 지난 19일 충청에너지서비스(대표 구현서)에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청주복지재단,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매니저 발대식을 진행했다.

지서서비스는 도시가스 안전매니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복지안전망 확대), 종사자 교육 참여 및 지원,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연계, 복지정보 등 영상 및 제작물 게시 홍보 등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협약식 후 도시가스 안

전매니저 130여명과 함께 '안전매니저 발대식'을 진행했다.

발대식에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장 전달, 선서문 낭독, 복지사각지대 발굴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지역사회 안전매니저로서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시가스 안전매니저는 도시가스 검침 및 점검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주복지재단에 의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신고가 들어온 취약계층에 대해 공적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 지원하고 복합적인 문제나 복지욕구가 있는 대상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현서 대표는 "위기상황이 의심되는 세대가 발견되면 도움을 요청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충주시가족센터, 외국인 정착지원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 장관상 수상

충주시가족센터(센터장 심재석)는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해 외국인 정착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센터는 충주시로부터 건강가정 및 다문화 업무를 위탁받아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및 다문화 가족 적응 등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일반시민과 이주여성들 1:1로 매칭하여 요리활동을 통해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기정착지



충주시가족센터는 외국인 정착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원 사업 '언니들의 맛있는 수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및 정서교육 각종 체험활동,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

상으로 사회 포용 안전망 구축을 위한 '꿈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심재석 센터장은 "충주시가족

센터의 그간의 노력과 활동이 인정을 받게 되어 몹시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일반시민과 다문화가족을 이원화하지 않고 함께하는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시민 행복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복지 충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가족센터는 건강한 가정과 다문화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chungju.familynet.or.kr>)와 카카오톡 채널(충주시가족센터)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사업 우수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는 좋은이웃들 사랑의 집수리봉사단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있다.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손광영)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좋은이웃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2022년 전국 우수기관으로 공공전달체계의 제도적인 틈새를 보완하는 대표적인 민간사회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2022년에는 진천군 복지사각지대 1048가구를 발굴·지원·연계하여 약 5억4000만원을 대상자들을 위해 지원했다. 좋은이웃들 사업은 긴급요

하는 주거, 의료, 식료, 생활을 지원하며 1인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심사 및 지원연계회의를 통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하는데는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와 담당자들의 남다른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대구 인터뷰고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사회복지협의회 전국대회'에서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헌신한 '좋은이웃들' 사업 유공자로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이은순과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청주월드휴먼브리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한부모 가정에 800만원 전달

청주월드휴먼브리지(대표 안광복)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가 위탁 운영하는 충북하나센터(센터장 백운기)에 지난 13일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지원을 위한 후원금 8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20명에게 4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취약계층 정착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광복 대표는 "북한이탈주민이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백운기 센터장은 "기탁해주신 후원금은 도움이



청주월드휴먼브리지는 충북하나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지원을 위한 후원금 800만원을 전달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월드휴먼브리지는 이 외

에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학원비, 문화탐방, 부세미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발대식'

사회공헌 활동 통해 긍정적 노년문화 형성



청주내덕노인복지관은 지난 15일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주내덕노인복지관(관장 김혜정)은 지난 15일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지원사업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은 '노인'의 역할에서 나아가 인생의 선배, '선배시민'으로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후배 시민들의 본보기가 되어 발전에 기여하는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한다.

본 기관에서는 실실뜨개봉사단, 스마트시니어서포터즈, 실버방송국, 공예누리봉사단 등 4개 분야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발대식은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사업 소개, 자원봉사 선서문 낭독, 임명장 및 수료증 전달, 자원봉사자의 개념 및 자세, 필수 교육 강의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충북 장애인미술대전' 빛났다

대상·우수상 등 총 5명 수상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호찬)은 지난 14일에 진행된 '2023년 충북 장애인미술대전'에 참가하여 민화부문 대상, 우수상 등 총 5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023년 충북장애인미술대전은 충청북도에서 지원하고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한)에서 주관하는 대회이며, 충북 도내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문화 예술 분야 저변 확대 및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서예, 민화, 회화 3개의 부문으로 진행됐다.

대면 경연인 회화부문에서는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발달장애 부문 우수상, 기타 장애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4일 '2023년 충북 장애인미술대전'에 참가하여 총 5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부문 우수상, 특선으로 3명의 어반스케치 프로그램 이용자가 수상하여 2023년 충북 장애인미술대전에서 총 5명의 대상자가 수상을 했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응원하기 위

해 상담, 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사업, 장애인가족지원, 직업적응훈련 및 취업지원, 주간보호센터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장애인복지관(☎043-883-2900), 평생학습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정답은 **충북복지넷**!

www.043w.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표 정부의 복지정책 전략 공개

약자를 위한 정책집중 등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제시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 마련

민·관 협력 기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실현



정부는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구체화했다.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핵심과제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선진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투자로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약자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는 한편 전 국민의 보편적 욕구 실현을 위한 서비스 복지를 강화하고, 복지 재정 혁신으로 건전성 제고 하고 제도를 효율화하는 과제들이 추진된다.

우선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여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한다.

구체적 과제로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 마련, 사회보장제도 내실화를 통한 다양한 사회격차 완화,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돌봄, 안전, 고용, 건강 등 보편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복지도 충실히 지원하여 생애주기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기반 사회서비스 고도화, 건강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보건복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복지 재정 혁신을 통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세대 간 공정과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세부과제로는 건강보험·연금 개혁 등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사회보장 전달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의 목표와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하여 '제3차(24~28)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올해 말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는 우선 중앙부처 단위부터 복잡한 제도를 패키지로 통합하고, 누락·부족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여 국민의 제도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이다.

중앙제도 통합관리 방향은 크게 대상별·분야별 제도 관리, 전달체계 및 국민안내 개선, 제도상시관리 체계 강화로 구분된다.

첫째,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각기 운영중인 제도를 국민편의 관점에서 패키지로 통합하고 동시에 누락·부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가령, 초등돌봄은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중심의 초등돌봄 관리체계(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패키지로 관리하여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인다.

그간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던 고령·은둔 청소년·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추가로 검토한다.

둘째, 각종 전달체계 및 상담·안내 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의 제도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별도 프로세스로 운영 중인 가정폭력 및 각종 학대(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응체계를 연계하여 대상자 지원의 누락을 방지하고, 제도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한다.

제도 상담·안내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지자체 상담전화(120) 및 대표 홈페이지(복지로)만 기억하면 상담·안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복지전화 및 홈페이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 안내의 중심축으로 운영한다.

셋째, 일회성 제도관리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통합관리 기반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및 사후평가 등 제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미흡의 사업에 대한 이행관리 및 모

니터링 등 사전협의의 제도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 각종 통계·데이터 산출기반을 확충하고, 평가단위 및 지표 개선 등 사후분석 평가체계를 강화한다. 이러한 객관적 근거기반을 구축하여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진단·분석하고, 국민의 정책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관리한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대상자 확대, 고품질 서비스 실현, 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 조성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규제 개선, 품질관리, 재원 마련 등 관리자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이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우선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민간 협업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도모한다.

대상자 확대를 위해 서비스 이용 소득 제한을 풀어 중산층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 등 신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신규서비스를 확충한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도 이용 허용(23년 일부 지역 시범적용)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60% : 3인 가구 709.6만원, 4인 가구 864만원

**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기존 서비스(장기요양 등) 선정 전 돌봄 공백 등

고품질 서비스 실현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된 융합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분절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양질의 민간 공급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 강화와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쟁원리 도입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기반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 사회서비스 R&D, 투자펀드 조성 등으로 복지기술 고도화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법·조직 기반도 정비한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토해온 핵심 복지 의제(agenda) 중 하나이다.

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돌봄 분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 중심 돌봄 체계'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 중심 돌봄 체계란, 분절되고 이용이 제한된 돌봄서비스를 혁신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첫째,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필요 중장년 대상 일상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노인·아동·장애인 등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도입되어 청년·중장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앞으로는 청년·중장년도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함께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 서비스를 수요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제공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이나 보호자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거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은 신속하게 일시적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또한, 가정양육 아동도 필요시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을 대폭 확대(~27년 6만명)하고, 36개월 이상 아동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23년~).

보호자의 입원 등 긴급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3년, 34개소)도 시행한다.

셋째,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인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시범사업을 통해 퇴원환자 등 중점돌봄 필요 노인을 대상으로 기존 안전 확인 뿐만 아니라 가사·식사·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한 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23년, 50개)과 정해진 급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추진한다(시범사업, 24년~).

넷째,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평가를 강화한다.

지역사회바우처 분야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제한된 서비스 제공범위를 광역단위로 확대해 제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은 부실기관 퇴출 등을 위해 지정 갱신 심사(25년~)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늘봄학교의 운영 시간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참여 촉진을 통한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을 통한 주거, 복지, 보건 융합서비스 제공방안과 교통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출처:보건복지부)

●비전·전략 및 핵심과제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표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증진	
전략	약자 복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사각지대는 촘촘히 발굴하여 지원
	서비스 복지	전생애에 걸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축
	복지 재정 혁신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세대간 공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추진방향

목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
방향	국민 편의, 행정 간소화, 지출 혁신
3대 분야	1. 제도 운영 중심 정립 : 중심부처, 중심제도 설정
	2. 전달체계·안내방식 개선 : 전달체계 및 상담·안내 개선
	3. 제도 쏠주기 관리 강화 : 신설협의 및 사후평가 관리개선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비전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구현	
추진 전략	·서비스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보편복지 실현 ·국민 관점에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 ·민간에서 혁신적 서비스 제공, 정부는 시장 관리자 역할에 집중(민·관 협업)	
	방향	세부 내용
고도화 추진 방향	대상 확대	● 이용제한 개선, 자부담으로 수요 창출 ● 청년, 중장년 등 신수요 대응 ● 긴급, 틈새 수요 대응 서비스 개발
	고품질 서비스	● 융합형 서비스 도입 ● 가격 제도 개편
기반 조성	양질의 공급자 육성	● 경쟁 도입 ● 평가를 통한 역량 강화 ● 규모화 지원
	기대 효과	●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 복지기술 고도화 ● 법, 조직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기대 효과	▲ (복지) 전국민 사회서비스 이용률 40%(+7%p) 달성(~'27) ▲ (고용)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60만 개 확대(~'27)	

복지광장

‘노인 장발장’, 범죄인가? 학대인가?



황 지 연
과신군노인복지관장

6월 15일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법정기념일이며, 유엔(UN, 국제연합)이 지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기도 하다.

번 혹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노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정신적 괴로움을 주는 행위 또는 적절한 조치가 부족한 상태 또한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사과 5개 절도...노인 장발장’ 해법 없냐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생활고 등으로 노인 절도 범죄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이였다.

전국으로 절도 범죄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반대로 노인 절도 범죄는 늘고 있다.

이는 경제 위기에 내몰린 노인들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소액 절도까지 손을 댄 사례가 대부분으로 노인의 경제적 학대 문제로 이어진다.

이 기사를 읽고, 10여년 전 일본의 경우 고령자 절도가 급증해 교도소가 요양원화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충격받았던 것이 떠올랐다. 물론 우리나라는 생계형 범죄에 대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등을 통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거 일본 사례를 통해 생계형 소액 절도를 저지른 ‘장발장 노인’ 더 이상 늘지 않는 지원대책

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인 것은 확실하다.

뉴욕의 시장 피오렐로 라과디아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미국 뉴욕의 한 법정에서 빵 한 덩이를 훔친 죄로 한 노인이 재판을 받았다. 판사는 노인에게 물었다. “왜 훔쳤습니까?”,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어 배가 고프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후 판사는 판결을 내렸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저와 법정에 앉은 방청객들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노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내버려 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당시에 이 법정에 앉아 있는 여러 시민들께서도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판사는 가장 먼저 모자에 10달러를

넣었고, 시민들은 벌금형에 동참했다. 노인은 10달러로 벌금을 내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눈물을 글썽이며 법정을 떠났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유명한 이유는 생계형 노인 범죄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인 의 빈곤을 방만한 경제적 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동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팬데믹과 전쟁 등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나쁜 온갖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 노인의 경제적 방임과 학대는 더 많아질 것이 예상된다. 노인부양문제에서도 경제적 문제가 가장 커다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갈등이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노인의 경제적 학대는 증가할 우려가 높기에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에 대한 다방면의 사회적 지원 대책과 예방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노인 장발장’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노인학대로 인지하는 우리의 자세가 동반 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칼럼

녹내장 : 눈 건강을 지키는 중요성과 예방법



김 지 수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안과 과장

‘조용한 시력 약탈자’라고 불리는 녹내장은 시신경이 남보다 빠른 속도로 점차 손상되어 파괴되는 질환이다.

가장 흔한 유형은 개방각 녹내장으로, 안구 내 방수가 유출되는 경로가 열려있는 녹내장 질환을 말한다.

녹내장은 흔히 고령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20대, 30대 등 젊은 연령층에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당뇨 망막병증, 황반변성과 함께 실명을 일으키는 국내 3대 질환 중 하나이다.

녹내장의 발병원인은 ‘높은 안압’ 때문에 생긴다.

정상인의 안압 범주는 6~21 mmHg이며, 녹내장 환자는 이보다 높은 안압으로 인해 시신경이 압박을 받고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안압이 정상이라도 시신경 부위의 혈류가 저하되면서 시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젊은 연령층의 녹내장의 발병원인 중 하나는 ‘안구의 구조적 문제’이다.

근시 및 고도근시가 있는 환자의 경우 시신경의 모양이 근시가 없는 정상적인 안구 모양과 다르게 생겨 녹내장이 발병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성인병’이 있다.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 등 혈관인자의 문제로 인하여 녹내장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므로 초기, 중기 녹내장일 경우에는 이러한 시야 좁아짐, 시력 저하 증상을 환자 본인은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진행과정을 거쳐 시신경 손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주변부 시야가 점차 좁아지며, 말기에 이르면 시력 저하가 생기거나 심한 경우 시력을 잃는 경우도 발생한다.

시신경은 한 번 파괴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녹내장은 빠른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며, 녹내장 발견 당시의 시력과 시야를 최대한 유지하고 시신경의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녹내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안압 검사, 안저 검사, 시신경 검사, 시야 검사, 우각경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검사에는 통증이 생기지 않으며, 모든 검사를 매번 전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안과 전문가가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선택해 실시한다.

녹내장의 기본적인 치료는 매일 안약을 점안하여 안압을 낮추는 것이다.

치료 안약으로 인해 통증, 작열감, 충혈 등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안약이 시신경을 보호하고 녹내장 진행을 늦추므로 눈에는 불편함을 주더라도 환자들은 안약을 사용하는 이유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먹는 약, 레이저 치료 등 단독 또는 병용하여 치료하며, 안약으로 안압의 조절이 충분하지 않거나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실생활에서 녹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이 매우 중요하다.

그 밖에 물구나무 자세를 피하며,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녹내장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안구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40세 이상이라면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하여 녹내장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한 예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의료비 부담의 문제로 치료시기를 놓쳐 녹내장으로 인한 시력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인수술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녹내장뿐만 아니라 백내장, 망막질환, 각막이식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으므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적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의 목소리

회의감이 확신으로... “벌써 1년, 기대되는 향후 1년”



연 지 영
청주흥덕시니어클럽 사회복지사

필자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진 지 1년 차에 접어든 신입이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현재의 느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회복지 안에서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처음 사회복지 시작했을 때부터 노인복지에 가장 크게 관심이 있었다.

필자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장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단순히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모든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자신보다 더 오랜 시간 삶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욱 노인복지시설에 취업하고자 했다.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이란 여가나 요양 목적이지만 시니어클럽은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이 달랐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열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한 흥미가 생겼다.

많은 시니어클럽 중 기존의 오래된 사업들이 자리를 잡아 큰 틀을 형성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들을 시도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청주흥덕시니어클럽’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첫걸음을 함께할 수 있었다.

청주흥덕시니어클럽의 경우 유형별로 20개의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약 1,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다. 필자는 여러 가지 사업 유형 중 공공형에 해당하는 실버공원지킴이 사업을 담당하며 약 24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있다.

많은 인원과 각자의 요구사항이 달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야외 공원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민원 해

결도 역시 쉽지 않았다.

또한, 일부 어르신들께선 필자의 경력과 어린 나이로 인해 무시하기도 탐탁지 않아 하기도 하여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도 열심히 하는 모습과 어르신들께 더욱 관심을 표현한다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되어 연락도 자주 드리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어르신들도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연 선생님’이라 불러주시며 더욱 친근히 다가가 주셨다.

어르신들께서는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사회·여가활동을 할 수 있어 즐겁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셨다.

비록 적은 활동비이지만 본인의 힘으로 돈을 번다는 점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활동한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공공형인 실버공원지킴이 240명 어르신들과 사회서비스형인 우정과 사랑드림 40명의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있다.

우정과 사랑드림의 경우 우체국에서 우편물, 소포 분류를 하는 작업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경력과 자격증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서 사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다.

최근 우정과 사랑드림 어르신들과 교육을 함께 들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어르신들이 평소 가지고 계셨던 생각과 활동에 대한 자부심,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당자로서 감사하기도 했고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기반성도 할 수 있었다.

또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속에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와 경륜을 배울 수 있었고 노인복지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두 개의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다른 배울 점들이 있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방법, 민원인을 상대하는 방법, 더욱이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며 조금은 성장했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고 배울 것이 더욱 많은 1년 차 신입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고민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만족하며 앞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많은 것을 경험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사회복지사의 삶이 기대된다.

똑똑똑! 법률상담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상담터

법률상담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 달의 법률상식

개물림 사고에 관한 법적 문제



신덕범 변호사
법무법인 YK

Q 반려견에게 공격당해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경우, 견주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주변을 돌아보면 반려견이 반려견 보호자, 즉 견주의 부주의함을 틈타 상당히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여 사람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20년 2,114건, 2019년 2,154건, 2018년 2,368건 등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하루 평균 6~7건이 발생할 만큼 상당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개물림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법 제266조에서 규정한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

다. 또한 과실의 정도가 중한 경우라면 '중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하는 경우에는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모두 착용시켜야 합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에 해당하는 경우 목줄과 더불어 입마개 착용을 요구합니다. 만약 목줄 및 입마개 등을 하지 않고 외출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다면 반려견 소유자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21조 위반에 의거, 동법 제97조 제2항 제5호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사망 사고가 생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주의 입장에

서 의도적으로 발생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상해의 정도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에서부터 실형까지 나올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초범의 경우 검사의 구약식 처분에 의하여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편입니다.

인사동정

■ 북부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최정순 / 5월 22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이직, 퇴직, 사임 등)에 대해 개계를 원하시는 시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사회복지사

복지정보 제공

[새생명지원센터, 2023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 사업 안내]

■ 신청대상: 충청북도 거주 만 24세 이하 한부모, 만25세 이상 미혼모·부(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자)
■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 지원내용: 양육용품 및 병원비 지원(연 100만원 이내),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지원, 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자녀양육(돌봄) 연계 등, 주거·교육·취업지원 등
■ 문의 및 신청: 새생명지원센터(1577-3053)

[청주시가족센터, 보호아동청소년 원가정기능회복지원사업 "우리 가족이 하나되는 순간: 가족의 온도 36.5"]

■ 신청대상: 원가정 기능회복을 희망하는 아동·청소년 가정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 및 가족문화체험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 지원기간: 2023년 1월 ~ 12월
■ 신청방법: 청주시가족센터(043-295-1817)

[청주시가족센터, 함께하면 아름다운 "행복어울림"]

■ 신청대상: 한국 생활에 복합적 어려움이 있으며,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다문화가족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손)자녀 학습멘토링서비스, 가족문화체험,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지원기간: 등록시기부터 1년 이내(최대 1년 연장 가능)
■ 신청방법: 청주시가족센터(043-295-1817)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3년도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진행일시: 3월 ~ 12월 (연중 신청가능)
■ 진행장소: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1층)
■ 진행대상: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성인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및 이용자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신청 인원은 회차당 20명 이내로 가능함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UD) 이론 교육, 유디체험관 및 주체체험관 견학
■ 신청방법: 전화 접수(T.234-0840~2)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문의: 043-234-0840
■ 참고: https://www.043w.or.kr/

[(사)유쾌한반란, 구명뒤주 3기 청소년 장학생 모집]

■ 지원자격: 2005년 1월생~2010년 12월생, 도전 목표가 분명하며 스스로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기존중위소득 100%이하인자)
■ 지원내용: 도전장학금(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자들이 원하는 금액만큼 3개월 지급), 연장 장학금(3개월의 기간 동안 도전 일지를 성실히 제출한 장학생 중에서 선발하여 도전장학금 지급을 2개월 연장-최대 10명), 월1회 문화 및 체험활동 제공, 법인 행사 체험 기회 제공
■ 접수기간: ~2023.7.2.(일)
■ 지원방법: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문의: opening@queran.or.kr
■ 참고: www.queran.or.kr

[제9회 밀알복지재단 스토리텔링 공모전 '일상 속의 장애인']

■ 공모기간: 2023.6.1.(목)~7.16.(일)
■ 공모주제: 일상속의 장애인(장애 또는 장애인과 관련된 실제 경험담)
■ 응모자격: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참여 가능
■ 응모분야: 수필(에세이)
■ 응모규격: A4용지 3매 이내 등
■ 응모방법: 온라인, 이메일 중 택 1 접수
■ 시상내역: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부문별 시상인원 및 훈격별 상금 상이)
■ 문의: 070-7462-9046
■ 참고: www.miral.org

[2023년 비전장학금 공모 안내]

■ 접수기간: ~2023.7.5.(수)까지

■ 지원금액: 약 14,000,000원 (등급별 차등지원)
■ 지원기간: 졸업할때까지(단, 학기마다 재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원 중지사유인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됨)
■ 접수기간: 2023.6.14.(수) 10:00 ~ 7.5.(수) 17시까지
■ 접수방법: 본 재단 홈페이지(www.jbfoundation.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홈페이지 참고
■ 문의: 02-2191-7501

[우리금융 미래재단, 사회공헌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2023.7.14.(금) 18:00 / 4주
■ 공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주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 제출서류: 홈페이지(http://www.woorifuturefoundation.or.kr) 참고
■ 제출방법: 이메일(woorifufu@woorifuture.or.kr)을 통한 접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지원사업 진료비 지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만 24세 이하
■ 지원병종: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 환 및 장기이식
■ 지원금액: 소아암·백혈병(등급별 300~1,000만원), 희귀난치질환(500만원), 장기이식(병종별 500~2,500만원)
■ 문의: 02-2077-3954
■ 참고: www.bokji.net

[중부재단, 2023년 제14회 중부비전스쿨 공모 안내]

■ 교육대상: 사회복지지문경력 5년 이상 인 중간관리자급 이상
■ 교육일시: 2023.8.9.(수)~10.11.(수) / 주1회, 총10회 / 매주 수요일 14:00~17:00
■ 교육비: 15만원(9회 이상 출석 시 교육비 전액 환불 / 9회 미만 출석 시 반액 환급)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8회), 오프라인 교육(2회)
■ 신청기간: ~2023.7.10.(월) 17:00

자원 봉사자 모집

- ▶ 단순직업 및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관리센터: (사)충북중증장애인복지협회 활동기간: 7.1~7.31 전화번호: 043-222-8890
- ▶ 초등 학습지도 관리센터: 한빛교실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7.1~7.31 전화번호: 043-237-1487
- ▶ 시각장애인용 점자, 전자도서 제작 관리센터: 무지개도서관 활동기간: 7.1~7.31 전화번호: 043-237-5544
- ▶ 목공소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기간: 7.1~7.31 전화번호: 043-291-0199

- ▶ 생활환경개선, 어르신돌봄, 정서지원 관리센터: 청주노인주간보호센터 활동기간: 7.1~7.31 전화번호: 043-285-3131
- ▶ 프로그램 진행보조, 참여아동 관리 관리센터: 충주시가족센터 활동기간: 7.1~7.31 전화번호: 043-846-2253
- ▶ 기관 내 문구 전자부품 조립작업 관리센터: 충북광화원제안원 활동기간: 7.1~7.31 전화번호: 043-253-7597
- ▶ 아이꿈터 및 체험실 환경정리 관리센터: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활동기간: 7.1~7.31 전화번호: 043-845-7505

- ▶ 경로식당 조리보조 관리센터: 괴산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7.1~7.31 전화번호: 043-834-3411
- ▶ 2023 멘토링프로그램 멘토 모집 관리센터: 청주사회복지관 활동기간: 7.1~7.31 전화번호: 043-253-4493
- ▶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다사랑회, 한글·한자 교육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다사랑회(회장 김정숙)은 지난 7일 청주시 우암동 평이교 당당교회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자 교육을 진행했다. 다사랑회는 2013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주1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숙 회장은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충북 화상이 새로운교회 도서관에서

있음에 감사한다"며 배움에는 끝이 없고 이로 인해 즐거움도 생긴다"라며 배움과 가르침 그리고 도전에 대한 즐거움을 이야기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2) 또는 이메일(mjp7117@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일상 속 문화를 더 가깝게 충청북도 문화소비 365. 공영관람 20% 할인, 전시관람 20% 할인, 도서관 10% 할인, 작은영화관 2,000원 할인. 신청주소: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www.cbfc.or.kr. 이용기간: 23년 7월~12월. 1도민 가입신청: 6월 20일(화) ~ 선착순 마감까지. 2가맹점 참여신청: 6월 15일(목) ~ 11월 30일(목)까지. 3문화소비 365 이용하기 (결제: 카카오페이 pay).

면죄부. 교회와 이음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과학의 이음으로 네 위험성을 사하노라... IAEA. 후쿠시마 오염수.